

# 朝鮮後期 女子 저고리 短小化와 象徴的 意味

동아대학교 의상섬유학부  
강사 류재운  
동아대학교 의상섬유학부  
교수 전해숙

目 次	
I. 序 論	2. 女子 저고리의 象徴的 意味變化
II. 朝鮮後期の 時代相과 女性像	(1) 社會的 側面
1. 朝鮮後期の 時代相	(2) 經濟的 側面
2. 朝鮮後期の 社會的 女性像	(3) 文化的 側面
III. 朝鮮後期 女子 저고리의 形態變化와 象徴的 意味變化	IV. 結 論
1. 女子 저고리의 形態變化	參考文獻
	ABSTRACT

## I. 序 論

### 1. 研究目的

복식은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서 그 시대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즉 복식은 실용적 기능 외에도 상호작용을 위한 非言語的 記號로서 사회 구성원간의 공통된 동일한 상징을 만들어 의사전달적 상징(communicative symbol) 기능을 한다.

따라서 복식은 그 사람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 및 위치, 생활 가치관, 연령, 관습, 종교 등을 알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주며, 또 그 사회 집단의 미적 기호나 도덕적 상태, 정치적 형태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므로 非言語的 象徴 機能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복식의 한 유형으로서 저고리는 그 사회의 구조 및 현상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삼국시대부터 고려말, 조선초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생활은 비교적 활발하고 자유로웠으나<sup>1)</sup> 조선후기에는 남성 지배적인 유교의 男尊女卑 思想의 바탕에서 여성들은 폐쇄적이며, 억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여자 저고리의 양식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보며, 이를 통해 당시 여성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복식이 가진 의미를 유추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여자 저고리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여자 저고리의 형태변화를 조선후기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그에 따른 여성들의 사회 심리적 상태의 반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魏志, 隋書 高句麗傳, 三國志 東夷傳, 北史 高句麗傳, 修山集(李種徽), 高麗圖經(徐 鏡).

## II. 朝鮮後期の時代相과 女性像

### 1. 朝鮮後期の時代相

조선왕조는 16세기 전반까지 고려시대의 불교적 요소와 유교적 요소가 병용되는 일종의 過渡期的 混合文化의 시기로서 사회구조도 형식성의 측면은 儒敎化하고 있었으나 본질적 측면은 과도기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전쟁으로 16세기 이후의 사회·경제변동은 더욱 격심하게 되어 새로운 사회체제의 정비를 위한 방편으로 유교적 통치 이념의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므로써 유교의 정착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소극적으로 불교적 요소를 억제, 제거, 축소, 수용하던 것이 적극적으로 유교적 요소를 확대, 보급하여 17세기에는 유교적 가치 체계에 의해 規制되는 새로운 사회질서가 확립되고 모든 민중에까지 유교의례가 파급되었다.<sup>2)</sup> 이러한 유교주의적 통치체제가 완비되는 동안 조선왕조의 신분체제는 전쟁중의 재정 조달 방편으로 納粟策이 시행됨으로써 문란해졌으며, 족보를 허위로 고치는 현상들이 발생함으로써 호적상으로 양반의 수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양반과 농민층이 양극으로 분화하는 이러한 모습은 李重煥의 「擇里志」<sup>3)</sup>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을 내포한 채 조선후기의 경제는 移秧法과 水利施設이 발달되어 벼와 보리의 二毛作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곡물 이외의 특수한 농작물을 재배하여 이를 商品化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 조달을 위하여 때로는 전국적인 규모의 상업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

에서는 상품의 都賣商인 賸主나 旅鬻이 등장하였으며, 상품 생산의 필요성은 수공업의 발달을 자극하였다.<sup>4)</sup> 그리고 이러한 수공업의 발달은 화폐유통을 촉진시켜 米, 布, 銀子 등 現物貨幣 이외에 常平通寶가 새로이 주조되어 널리 유통되었다.

이와 같은 농업 생산력 발전과 상업의 발전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신분구조의 혼란 등으로 인해 점차로 儒敎式 喪·祭禮가 사대부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에까지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바로 유교 의례가 전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감을 의미하며, 그 결과 유교적인 家族主義, 集合主義, 特殊主義, 權威主義와 같은 傳統社會가 構造化 되었다.<sup>5)</sup>

이러한 가운데 老佛思想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성리학은 조선후기 사회변동에 따라 모순점이 발생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성과 淸나라를 통해 들어온 고종학 및 서양문물의 영향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의 실학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기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면서 봉건적 사회구성을 와해시키기 시작했다.

이상에서와 같이 조선후기는 兩亂을 거치면서 유교체제의 강화, 전통적인 신분체제의 와해, 농업 생산력과 수공업의 발전, 현실적, 물질적, 인본주의적인 실학이 전해지는 불균형 상태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사회현상들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사회적 모순과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 또 한 개인내의 갈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복식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 2. 朝鮮後期の社會의 女性像

2) 崔在錫, 朝鮮中期 家族·親族制의 再構造化(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21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p.26.

3) 李重煥, 擇里志, 總論.

故士大夫或夷爲平民平民久遠則或昇漸爲士大夫.

4) 河炫綱, 韓國의 歷史, 新丘文化社, 1979, pp.237~238.

5) 안호용, 유교의례의 보편화와 전통사회의 구조화(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21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p.105.

조선후기에는 유교주의적 통치체제와 의례가 강화되어 여성에게는 엄격한 윤리적 제약 속에서 유순과 공경만이 으뜸가는 덕이 되었으며, 三綱五倫, 三從之道, 七去之惡 등의 법과 함께 順從하는 儒敎的 女性觀을 강요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폐쇄된 사회의 억압된 상황에 적응하면서 발달시켜 간 여성들의 의식 세계와 적응하지 못했을 때 남게 되는 여성들의 심리적 갈등과 모순은 조선후기 여자 저고리에 반영되었으리라 본다. 이에 法制上의 地位와 유교사회가 회구하는 女性像을 통해서 여성이 처한 구조적인 상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 (1) 法制的 女性像

#### ① 親族法上(婚姻, 再婚, 離婚) 女性의 地位

婚姻에 있어 고려시대의 결혼 형태는 一夫多妻制 社會로서 여러 妻, 子女 相互間의 호칭이나 재산상속 등에는 별로 차이가 없었다. 婚姻居住規則은 혼인 후의 생활이 妻家에서 이루어지는 장기간의 壻留婦家였으며 再婚도 자유롭게 행하여졌다. 그러나 조선후기 婚姻規則을 英祖朝에 편찬한 「續大典」을 통해 보면 同姓異貫의 혼인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sup>6)</sup> 고려 및 조선초기와는 달리 同姓婚이 거의 행해지지 않았으며 婚姻居住規則은 半親迎, 혹은 三日對飯의 습속이 널리 통용되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혼인제도로 인해 여성은 친정과는 단절되는 出嫁外人 思想이 형성되었으며, 또 男性, 長男, 父系親爲主의 여성 천대의 사회적 풍습이 양성됨으로써 여성의 지위는 더욱 하락하게 되었다.

再婚은 고려시대에 있어 일상적이었으며 조선초에는 三嫁者를 문계 삼았을 뿐이었으나 점차 부녀의 재가도 失行의 하나로 보았다. 그리고 成宗 8

년부터 재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재혼녀의 자손에게는 출세의 길을 막아 간접적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재혼 금지의 습속은 娶妻과 掠奪婚이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이에 대해 여성은 어떠한 의사도 표현할 수 없었다.

離婚制度에 관해서 조선시대에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有因 離婚만이 인정되는 엄격한 有制限主義를 채택하였다. 특히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유교가 본래의 사상에서 일탈해 官學化되고 硬塞化되면서 이른바 七出<sup>7)</sup> 三不出去가 대두되었는데<sup>8)</sup> 이는 「大戴禮」에 있는 말로(중국에서는 唐代부터 法律에 규정되었음) 家門爲主, 父母爲主, 男便爲主로 이혼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七出의 각 조항에서 盜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족 질서의 유지와 연속이 깊은 항목이라는 사실은 이혼이 어디까지나 家父長制의 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이며<sup>9)</sup> 지금의 離婚法制와는 대단히 상이하며, 특히 처의 권리가 완전히 무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혼은 사대부가의 수치로 여겼으므로 가능한 이혼하지 않은 채 소박(疏薄)이라 하여 명목상의 아내로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대신 첩을 들였는데, 이는 여성의 지위를 더욱 낮아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婚姻, 再婚, 離婚에 관한 法規는 조선후기로 올수록 남성 중심의 유교적 男尊女卑 思想이 정착화 되면서 三從之道, 再婚 禁止, 出嫁外人 등의 사상과 함께 여성의 예속적 지위를 정당화 시켰으며 이러한 사회적 특성은 여성의 심리를 위축시킴으로써 당시 복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 ② 相續法上(身分相續, 財産相續) 女性의 地位

고려시대의 相續制는 財産相續이나 祭祀相續에

6) 裴慶淑, 韓國女性 私法史, 인하대학교출판부, 1988, p.44.

7) 無子去, 不事舅姑去, 淫佚去, 妬忌去, 惡疾去, 口舌去, 盜竊去.

8) 崔根德, 韓國儒敎思想研究, 철학과 현실사, 1992, p.48.

9) 高永復, 韓國社會에서의 女性의 地位, 아세아여성연구 제10집, 1971, pp.9~10.

있어서 모두 子女均分相續의 성격이 강하며 이는 조선초까지 이어지며,<sup>10)</sup> 嫡長男相續을 원칙으로 하되 男孫이 없는 경우에는 女孫이 계승할 수 있었다.<sup>11)</sup> 그리고 睿宗 17년의 例에「凡父祖田 無父契者 嫡長爲先決給」<sup>12)</sup>이라 하여 嫡長을 先位로 하였으며, 長子以下の 자녀에게도 平分의 相續이 인정되었고,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妻가 夫의 재산을 상속하였다.<sup>13)</sup> 그러나 1700년대 중엽부터 長男優待, 男女差別의 상속을 취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은 일반화되었다.

身分相續중 하나인 養子制를 살펴보면 고려시대에는 族譜, 墓誌名 등에 입양이 거의 행해지지 않았으나 조선후기에는 20寸까지의 子로 확대되며, 妻族의 참여는 배제되고 남편쪽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父系親의 組織化가 점차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族譜를 살펴보면 조선초기까지는 外손을 代數에 상관없이 기재하다가 조선후기에는 外손의 범위를 3代 정도로 한정하였고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이 범위가 다시 축소되었다. 그리고 族譜의 기재순서도 出生順序에서 先男後女로 기재의 순서가 바뀌는 것은 여성의 지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財産相續을 살펴보면 1700년대 중엽까지의 子

女均分相續이 후기에 이르러서는 여자의 相續分이 거의 고려되지 않으며 長子 相續分 편중의 경향이 심화된다. 따라서 여성은 지위와 생활의 보장에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 하등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속제의 변화 양상을 畵재석은 다음 <표-1>로 정리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조선후기로 올수록 남성 중심의 유교 사상이 정착됨에 따라 孀留婦家의 단축으로 인한 男性, 長男, 父系親爲主의 유교적인 家族, 親族制와 더불어 엄한 再婚禁止가 내려지며, 身分 및 財産 相續制에서 철저하게 嫡長子 單獨相續이 행해짐으로써 여성의 지위는 크게 하락 되었다.

조선후기 여성의 法制上의 지위 하락은 여성의 심리를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복식은 그들의 열등된 자신의 정체성을 즉각적으로 식별하지 못하게 하면서, 여성적 특질을 드러내 줄 수 있는 복식으로 변화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理想的 女性像

조선후기는 유교적 도덕관념이 뿌리깊게 내재된 사회로서 유교의 강화에 따라 家族中心體制 확립의 일환으로써 夫婦有別 혹은 男女分別의 內外法이 강화된다. 이에 여성에게 役割觀念과 儒敎的

<表-1> 相續制의 變化 樣相

	1500	1600	中期	1700	中期	1800
財産相續	子女均分		長男優待 女子差等			
長男相續分	固定		增加			
祭祀相續	長男奉祀・輪回(分割)		輪回→長子奉祀 長子奉祀		長子奉祀	

출처 : 畵재석, 조선중기 가족, 친족제의 재구조화(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21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p.32.

10) 崔在錫, 전계서 2, p.31.

11) 高麗史, 卷 84 刑法志 2 戶婚條 靖宗 12年判.

諸田丁連立 無嫡子則嫡孫 無嫡子孫則同母弟 無同母弟則庶孫 無男孫則女孫.

12) 高麗史, 卷 85 志卷 第39刑法 訴訟條.

13) 高麗史, 卷 85 志卷 第39刑法 二奴婢條.

無子終身死者 其夫 得全妻之奴婢 其妻 守信 則亦得全夫之奴婢.

女性觀을 강요하게 된다.

유교적 여성관이란 유교적 사회체제를 성립하고 유지, 발전시키는데 합당한 여성의 자세와 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男性을 支配, 強健, 尊貴로 규정하고 이해하는데 반해 女性을 服從, 柔順, 卑賤의 대칭형으로 규정하고 이해하는 것이다.<sup>14)</sup>

원래 전통사회의 男, 女性觀은 陰陽思想에 근거한 것으로, 남자는 우주 창조의 근원으로서 적극적, 개방적, 활동적이며, 여자는 순종자로 소극적, 폐쇄적, 모방적인 인간상으로 대비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는 유교적 가족제도 성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쳐 실제생활에 있어 男女有別의 사회제도와 男尊女卑의 사회현상을 정당화하는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유교 중심의 조선후기 사회는 人倫道德과 禮儀凡節이 전체 사회구조 속으로 확산됨으로써 양반부녀 뿐만 아니라 일반 부녀에게도 생활화, 정착화되어 당시에 수많은 여성 교훈서가 보급된다.

이에 儒敎的 女性觀을 정립시키기 위한 많은 敎訓書중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진 內訓(昭惠王后; 1437~1504), 閩中要覽(李 滉; 1501~1570), 尤庵先生戒女書(宋時烈; 1607~1689), 士小節(李德懋; 1741~1793) 등의 女訓書를 통해 유교사회가 규정지어 놓고자 했던 閩鑑에 맞추어 여성들의 性品, 言語, 行動, 敎養 등의 修身敎育內容面에서 유교사회가 회구하는 여성상을 알아보고, 이러한 규범적 제약들이 당시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

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性品은 성질과 됨됨이<sup>15)</sup>란 뜻으로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言語와 行動은 그 사람의 內面的인 表現이라 할 수 있다. 「규중요람」<sup>16)</sup>에서는 貞靜幽閑의 德을 지닌 요조숙녀의 성품을 기를 것을 요구하였으며 유순, 근검, 인내심 등을 권장하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지나친 욕심과 사치심을 경계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된 여성적 성격과 가정 내에서의 행동 범위의 제한으로 인해 여성을 약하고 피동적인 성격으로 향하게 하였으며 정숙, 인고, 희생의 의무를 가지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심리적 압박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표현되었을 것이며 그 수단 중 하나로 복식이 사용되었으리라 본다.

言語에 있어 「우암선심계녀서」<sup>17)</sup>에서는 말에 함이 있어 신중하고 조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언어를 삼가함으로써 그들의 생각과 감정의 표현을 억제시킨 것으로 이러한 언어의 부자유는 인간관계의 부자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行動에 있어 많은 규제를 한 조선후기 유교 사회에서는 개인의 行動規範을 중요시 하였는데 특히 모든 행동에 있어 男女關係를 엄격히 제한하였다.<sup>18)</sup>

이러한 男女有別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자연질서의 이치인 陰陽原理에 따라 남녀간의 역할이 다름을 뜻한다. 즉 유교의 전통사회는 사회질서 유지와 확립을 위해 男女關係를 엄격하게 구별

14) 박용옥, 유교적 여성관의 재조명(한국 여성 연구1), 청하, 1991, p.11.

15)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3, p.1221.

16) 李 滉, 규중요람, 효형편 三十五面.

요조훈 스롭다운 여씨 군주의 죠힌 딱이 되얏다 하니 이는 정숙훈 티도를 용모 거동의 ㄸ탄하야…….

17) 宋時烈, 우암선심계녀서, 말숨을 조심하느니라 十七面.

상담의 일오티 신부가 식가의 가서 눈머리 습년이요 귀머이 습년이요 말 못하야 습년이라 하니, 눈 머단 말은 보고도 말하지 말난 말이요, 귀머단 말은 듯고도 드른체 말난 말이요, 말 못하단 말은 불킨호 말 하지 말난 말이니, 말을 습가훤이 웃듬 힘실이라.

18) 昭惠王后, 內訓, 卷第一 言行章 第一 三-四張.

男女不雜坐하며, 不同櫛櫛하며, 不同巾櫛하며, 不親授하며, 嫂叔이 不通問하며, 諸母를 不漱裳하며……女子許嫁纓하야든 非有大故어든 不入其門하며…….

함으로써 여성들에게 불리한 많은 역할을 부담시켰으며, 사회에서 격리되도록 억압, 구속시켰다. 이러한 성역할의 강조는 조선후기 여자 저고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지며, 이는 第Ⅲ章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또 이와 함께 「소소절」<sup>19)</sup>에서는 여성들의 외출을 제한 시켰으며, 부득이 외출 할 때는 가마를 타거나 羅兀, 長衣, 쓰개치마 등으로 얼굴을 가리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出入時의 行動上의 제한은 신분이 높은 여성일수록 더욱 강요되었다.

敎養은 학문, 지식 등에 의하여 생겨 난 품위, 혹은 문화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을 쌓아 길러지는 마음의 윤택함<sup>20)</sup>으로 볼 때 조선후기 여성에게는 교양이 크게 장려되지 않은 듯 하다. 「규중요람」<sup>21)</sup>에서는 교양에 한계를 두었으며, 周文煒는「부녀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주 없다는 말을 들을지언정, 덕이 없다는 말을 듣지 말며, 사대부 여자의 詩詞가 불행히도 전파되면 반드시 釋子에게 들어가며 後에는 창기가 부르게 되니 가히 부끄럽다」<sup>22)</sup>하여 詩詞를 지어 밖으로 전파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여성의 교양 교육은 지식과 학문에 있어 다 배우게 하였으나 이는 사대부의 극소수에게만 기회가 주어졌을 뿐이며 母親이나 叔母 등에 의한 폭좁은 교육이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훌륭한 여성문학 작품이 많은데, 특히 교방기녀의 詩는 매우 뛰어났다. 이는 그들이 느끼는 감정과 그 감정의 표현이 양반 부녀자에 비해 솔직하고 자유로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또 이러한 기녀들의 자유로운 감정 표현은 복식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사려된다.

이상과 같이 조선후기 男尊女卑 思想으로 인하여 親族法, 相續法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가 크게 하락되며 당시의 여성교육은 제도적으로 男女平等의 동일한 교육이 아니라 男女有別에 입각한 교육으로서 여성은 여성대로의 가정 내적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도덕과 범절의 교육을 받으므로써 여성 스스로 男女差別的 女性觀을 고정화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女性像은 오랜기간에 걸쳐 강요당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회적인 理想像으로 자리잡았으나 실제적으로 여성에게는 억압되고 강요되는 規範과 理想에 따르지 못하는 심리적 갈등을 더욱 심화 시켰으리라 본다.

여성의 이러한 구조적인 상황과 유교의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실학의 현세주의와 인본주의적인 사상의 갈등은 당시 근대적 사실주의에 힘입어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출되었을 것이며, 그 표출 도구의 하나로 단소화된 저고리가 사용되었으리라 본다.

### Ⅲ. 朝鮮後期 女子 저고리의 形態變化와 象徴的 意味變化

#### 1. 女子 저고리의 形態變化

저고리를 상대사회에서는 襦, 短衣, 尉解라 하였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저고리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저고리의 형태는 「短衣曰 自膝以上 一曰短而施腰者襦」로서 길이가 허리를 지나 엉덩이를 덮는 정도로 길며, 이는 조선초기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圖-1> 임진왜란을 전후로 점차 길이가

19) 李德懋, 士小節, 부의편(도덕회 역) 동지 五十一面.

그윽하고 고요한 줄들 못하야 성품이 출입을 조히 녀겨 쏘귀경항기를 탐하야 낮출 드레니고 우슴을 날이논니 흐르는 폐가 쏘큰이라.

20) 이회승, 전계서 15, p.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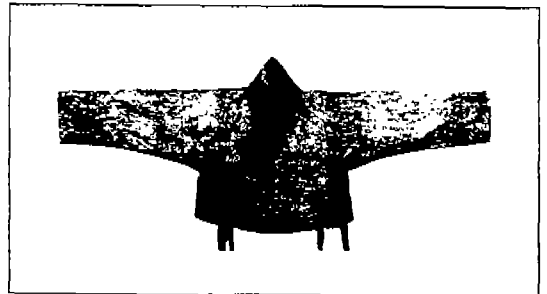
21) 李 視, 규중요람, 부의 四面.

부인 녀저로도 맞당이 시 서와 사곡의 소학과 너측톨 일겨, 녀던의 느라 이롭과 선터 조상의 명조를 알지니, 그러 하나 문필의 공교하고 시사의 찬란 흥은 오히려 창상의 본식이오 사부가 부녀의 형합희 안니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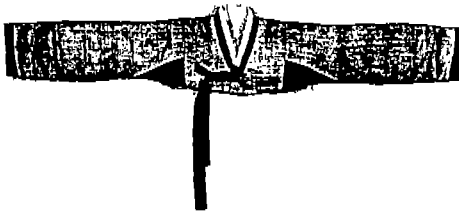
22) 李能和, 朝鮮服飾考, 百三十二-百三十三面.



〈圖-1〉 남양홍씨 황색명주누비희장저고리  
(1450년, 목판깃, 저고리길이 66cm, 석주선 박물관 소장)



〈圖-2〉 누비삼희장저고리  
(1690년, 당코깃, 저고리길이 45cm, 김재호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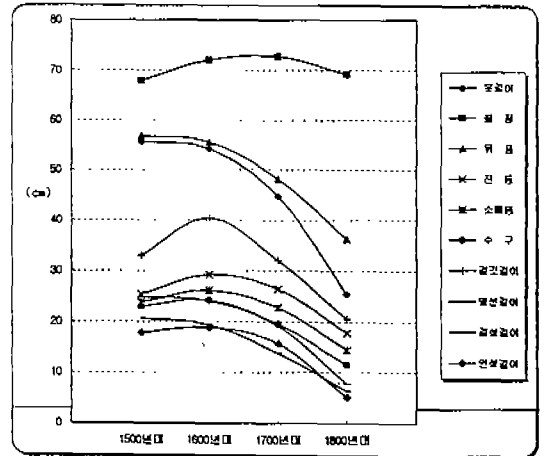
〈圖-3〉 연두색명주삼희장저고리  
(1890~1910년, 저고리길이 19cm,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짧아지고, 좁아지다가 〈圖-2〉 조선후기에는 가슴을 겨우 가릴 정도로 짧아진다. 〈圖-3〉

따라서 본 장에서는 조선후기 여자 저고리의 단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실존 유물의 치수와 문헌, 풍속화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러한 短小化의 傾向을 알아보기 위해 박규미의 유물실측을 통한 여자 저고리의 치수 연구에서 발표한 치수를 참고로 하여 〈圖-4〉로 나타내었다.

〈圖-4〉에 제시된 출토 유물들의 치수를 비교해보면 화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치수가 짧아지고 작아진다. 특히 옷길, 품, 걸깃길이, 옆선길이가 급격히 감소하며 이러한 현상은 1800년대에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저고리 각 부분의 전반적인 단소화 경향은 일차적으로 저고리 길이 변화에 의해 부수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고리의 단소화에 따라 곡선화 현상도 부



〈圖-4〉 조선시대 여자 저고리의 치수 변천

수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즉 저고리 길이가 길고 여유가 있을 때에는 자연적인 드레이프에 의해 몸에 맞을 수 있었으나, 저고리가 단소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몸에 맞게 되기 위해서는 실용적이고 장식적인 곡선이 필요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저고리 각 요소에서 나타난 곡선화 경향은 특히 저고리의 도련선과 옆선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圖-5〉

이와 같은 단소화된 저고리의 착용은 유교적 윤리관의 측면에서 볼 때, 비도덕적이며 앞에서 살핀 유교적인 여성상과는 거리가 먼 형태의 복식으로서, 이러한 현상을 문헌에서 살펴보면

「말세가 되니 부인의 옷이 소매는 좁고 옷자락은 짧은 것이 요사한 귀신에게 입히는 것처럼 되



〈圖-5〉作者未詳, 美人圖  
출처 : 東亞大學校, 博物館 圖錄, 東亞大學校, 1977, p.84.

었다……」<sup>23)</sup>

「지금 세상의 부녀들의 웃옷은 너무 짧고 좁으며 치마는 너무 길고 넓으니 요사스럽다……」<sup>24)</sup>

「우리나라 부인들의 의복은 저고리와 치마가 연결이 안되고 저고리가 짧아서 허리를 가리지 못한다……」<sup>25)</sup>

「부인의 웃옷은 좁고 소매는 길어서 허리까지 닿고 치마는 땅에 닿고 다리(체)는 매우 크다……」<sup>26)</sup>

「襦는 날이 갈수록 짧아지고 치마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지만 하는데……」<sup>27)</sup>라고 하여 朝鮮後期 여성들이 儒敎社會 속에서 비판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짧고 좁은 저고리를 着用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 여자 저고리의 전체적인 형태는 짧고 좁으며, 곡선이 많이 사용되었고, 實用的인 측면 보다는 裝飾的인 측면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사회의 비판 대상이 되면서도 여성들에게 꾸준하게 착용된 것은 그 당시 여성이 처한 사회구조 상황과 그 속에서의 여성들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사려되며, 이를 복식의 非言語的 側面的 象徴的 意味變化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女子 저고리의 象徴的 意味變化

조선후기는 전란 이후 봉건사회의 모순이 더욱 심화되어 양반과 사대부들의 부패 타락과 함께 유교적 봉건관념의 질서가 문란해졌다. 또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제가 발달함으로 인하여 신분관이 변하기 시작하여 전통적인 세습적 지위가 변모하는 가운데 현실적이고 사실주의적인 실학사상이 퍼져나갔다.

이러한 여러 사회변동에 수반되는 갈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정신적 모순과 갈등은 내면적으로만 내재되어 있었다기 보다는 외면적으로도 표출이 되었으며, 그 표출 매개체의 하나로 복식이 사용됨으로써 변해가는 복식의 상징적 의미들을 전달 받을 수 있다.

### (1) 社會的 側面

개인은 그가 속해 있는 집단 또는 사회에서 각 각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며 그 지위에 따라 역할

23) 李 溟, 星湖僊設 卷五 萬物門.

末俗婦女之服窄袖短裾近於服妖.

24) 李德懋, 青莊館全書 卷之三十 士小節 第六 婦儀一 服飾條.

時世之服上衣太短窄下裳太長博服妖也.

25) 增補文獻備考 卷之八十 禮考二十七 章服二.

安鼎福曰我國婦人之服衣裳不連而衣短不掩腰.

26) 洪大容, 滄軒書 內集三卷.

婦人衣狹袖長及腰承以袋及地鬢髻甚大.

27) 朴齊家, 北學議 內篇 女服.

襦日短而裳日張.



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며 그 지위와 역할은 각 사회의 특정 가치 기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평가되어져 하나의 계층 구조를 이루며<sup>28)</sup> 이러한 사회 계층 구조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써 복식이 사용된다. 그리고 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다양한 역할의 기대는 서로 상호작용함으로 역할이 수행되는 가운데서도 어떠한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다음은 유교사회인 조선시대의 지배적인 계급제도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변화 그리고 그 역할 수행에 따른 갈등이 복식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났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 ① 性役割

복식은 성역할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전통적 성역할 또는 변화하는 성역할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될 수 있다.<sup>29)</sup> 즉 복식유형과 성역할의 변화 간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 남녀 역할구분이 뚜렷할 수록 완전히 서로 다른 복식양식으로 상징된다.

조선후기 가부장제 가족구조가 확립되자 남성에 의한 여성의 性의 통제와 지배가 확고하게 나타남으로써 여성들은 이전과는 다른 여성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즉 고려시대와 조선초까지 외손과 내손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재산상속에 있어 남녀가 균등하였다. 그리고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시기의 가부장적 요소는 신분제적 지배를 의미하지만 남녀간의 행위 규범까지를 지배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유교 사상의 가족 친족제와 더불어 재산상속에서 철저하게 嫡長子 單獨相續 및 優待相續이 행해지며, 족보에서 자녀의 기재순서도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先男後女로 되며, 묘지명이나 족보의 기록에서 외손은

배제된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는 유교 이념에 따라 법제상에서 그리고 여성 규범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內外法이 강화되므로써 엄격한 역할관념이 주어지며 여성의 성적 억압은 심화된다.

이같이 남녀의 役割差別에 의하여 남자는 가정 외의 사회생활의 활동면에 그 職分과 責任을 다하도록 권장되고, 여자는 가정내의 가사와 자녀교육에 그 직분과 책임을 다하도록 조장됨에 따라<sup>30)</sup> 가정에 있음에 孝女되고, 結婚함에 順婦, 淑妻되고, 子女를 양육에 賢母되며, 不幸히 寡居함에 貞女되고, 患亂을 당함에 烈女되어 後世에 女宗되기를<sup>31)</sup> 기대하였다.

이와 같이 역할규정의 일치정도가 높을수록 복식에 대한 기대차는 훨씬 명확해지므로 남, 녀 복식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남녀 성역할의 차이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조선초까지 여자 저고리는 남자 저고리와 같이 허리 밑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성역할의 차이가 커지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는 조선후기에는 수동적으로 남성들에게 보여지기 원하는 복식으로 발달하여 저고리 길이가 가슴을 겨우 가릴 정도로 짧아지면서, 미적요소가 강화된 저고리를 착용하였다.

한편 이상과 같은 유교의 男尊女卑에 의해서 낮은 性地位를 가진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보여지기 원하는 짧은 저고리를 착용하면서도, 유교사회가 희구하는 여성들의 이상적 여성상에 부응하고자 짧아진 저고리에 대한 보완책으로 치마 허리로서 가슴을 압박하여 은폐시켰다.

그러나 치마 허리에 의한 은폐는 착의 방법에 의해 오히려 가슴을 강조하여 시선을 집중시킴으로서 남성을 유혹하는 도구로써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圖-6> 이러한 은폐에 의한 노출은 서양

28) 강혜원, 의상사회 심리학, 교문사, 1991, p.312.

29) Susan B. Kaiser(김순심외 4인 번역), 복식 사회 심리학, 경춘사, 1991, p.127.

30) 孫直錄, 조선시대 여성 교육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2, p.8.

31) 李德懋, 士小節 卷之六 婦儀篇 第二之一 性行章 五張.

在家孝女嫁人爲順婦淑妻生子爲賢母不幸榮寡或遭患亂不變素志爲貞烈之媛後世推爲女宗.



〈圖-6〉作者未詳, 美人圖

출처 : 崔淳雨, 韓國美術 3(朝鮮Ⅱ), 陶山文化社, 1982, p.55.

에서도 나타난다. 즉 중세의 코드피스(codpiece)는 양말의 분리된 두 가랑이의 열린 부분을 은폐하고자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사용되었던 것이 점차 장식하고 부풀려서 남성의 기관을 상징하는 도구가 되었다.

이상과 같이 조선후기의 유교 전통사회는 사회 질서 유지와 확립을 위해 男女關係를 엄격하게 구별하며 여성들에게 불리한 많은 역할을 부담시켰으며, 사회에서 격리되도록 억압, 구속시켰다. 이러한 內外法 강화에 의해 엄격한 역할관념이 주어짐으로써 성역할의 차이가 커지면서 여성은 수동적으로 남성들에게 보여지기 원하는 복식을 필요로 하게 됨으로써 가슴을 겨우 가릴 정도의 짧고 장식화된 저고리를 착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② 身分階層

사회적 계급이 생겨나면서부터 인간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으며, 신분상징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견해, 생활양식, 문화적 가치관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는 전달적인 수단으로서 사용된다. 그리고 신분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지배적인 계급제도에서의 사회적 신분 이동은 매우 어려우므로, 그 사회 신분제도의 특징은 그 시대 복식 양식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신분제도가 엄격한 사회에서는 복식의 계층 분화를 더욱 강화하고 法規範으로 制式化하며 이에 대한 下層身分의 도전을 사치금령으로 制止함으로써 복식을 신분상징의 도구로 사용한다.

조선시대의 신분복식도 예외는 아니다. 유례없이 엄격했던 신분제도는 복식의 엄격한 계층 분화를 가져오고 강열했던 兩班意識과 王朝的인 上下秩序意識은 그것을 더욱 밀접하게 하였다.<sup>32)</sup> 그러나 양란 이후 국가제정의 궁핍을 충당하기 위해 실시된 納粟策의 합법적인 방법과 경제적 여유를 가진 富農이나 大商들의 즉보 매입 등의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신분 이동이 가능해지므로 복식을 통한 신분구별성이 약화되었다. 더욱이 사회 전반적으로 개방의 흐름을 받아 서민의 사상적 발달과 경제적인 발달로 인해 계층간의 유행전파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므로써 上下가 大同小異한 복식을 착용하였는데, 이를 문헌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의 부녀들이 입는 짧은 소매 옷과 짧은 적삼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도 모르면서 귀천이 통용하니 매우 놀랍고 괴이한 것은 사람들이 익히고 보고 해서 常例로 삼는 것이다……」<sup>33)</sup>

「대저 복장에 있어서 유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娼妓들이 아양떠는 자태에서 생긴 것인데 세속 남자들은 그 자태에 매혹되어 그 요사스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妻妾에게 권하여 그것을 본

32) 李京子, 우리 衣生活의 傳統樣式(傳統의 生活樣式의 研究 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p.152.

33) 增補文獻備考, 卷之八十 禮考二十七 章服二.

今之婦女窄袖短衫不知何自而貴賤通用殊可駭異人習見以爲常.

받게 함으로서 서로 전하여 익히게 한다. 아, 時體가 닳이지 않아 규중부인이 기생의 복장을 하도다. 모든 부인들은 그것을 빨리 고쳐야 한다……」<sup>34)</sup>

이상과 같은 기록은 당시 양반층 부녀와 하류층 부녀가 모두 짧은 저고리를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주며, 또 복식의 유행이 이전과는 다르게 상향진과 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이 유교 사회에서 억압되고 규제된 생활을 하던 양반층 부녀자들도 하류층 부녀자들과 같은 짧은 저고리를 착용하였다. 그러나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는 짧고 좁은 저고리와 넓고 긴치마의 기본 복식 구조 속에서도 그들은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 衣料, 回粧, 金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하층 신분의 도전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한편, 사회적으로 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여러 지위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지위들 사이에는 기대감에 대한 격차가 생기는데 이를 지위 불일치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개개인이 자신이 가진 여러 종류의 지위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입각해서 자신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상대방의 가장 낮은 지위에 기준해서 상대방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기대하는 대우와 실제 남에게 받는 대우의 불일치는 기대감 사이의 갈등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는 심리적 긴장감을 더하게 하는 욕구불만과 불확실성의 결과로서 나타나며<sup>35)</sup>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심리는 복식변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양반부녀는 남녀 성역할에서의 낮은 지위와 높은 신분계층의 지위를 가짐으로써 지위 불일치가 일어나며, 또 규제된 생활 속에서의 억압된 심리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유로우며 아름다운 기생들의 복

식을 모방하여 그들과 대등소이한 복식을 착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후기는 양란 이후 여러 방법에 의해 사회이동이 가능해짐으로써 신분제도에 혼란이 왔으며, 이는 복식의 신분계층 구별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따라서 부를 축적한 良人과 妓生들의 신분상승 욕구는 삼회장 저고리나 사치스러운 紗羅綾緞의 사용을 통해서 극복하려 했으며, 양반층 부녀자들은 유교 사회에서의 억압되고 규제된 생활속에서의 심리적 압박과 높은 신분 지위와 낮은 성지위의 불일치에 따른 갈등과 모순을 해소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 때 신분계층의 완화는 자유롭고 아름다운 기생들의 단순화된 저고리를 모방 가능하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 (2) 經濟的 側面

사회계층은 개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며 계층화의 결과로서 생긴 생활양식의 차이는 복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복식은 계급적 위치를 인지하는데 사용되는 가시적 지표들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여러 사회적 요인에 의해 신분의 수직적 이동이 가능해 지는데 특히 조선후기는 경제적 요인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박지원의 「허생전」에서도 당시 사회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면 제대로 양반 행세를 하지 못했음을 알게 해준다.

이러한 현상은 양란 이후 전쟁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민중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17세기 이후에는 이양법과 수리시설이 발달되어 이모작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곡물 이외의 특수 농작물을 재배하여 이를 상품화 시켰다. 그리고 대동법의 실시로 마련된 貢人制度로 인해 부를 축적한 중인계층이 생겨나게 되었다. 경제적 부를 획득한

34)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三十 士小節 第六 婦儀一.

大抵粧飾衣裝號爲時樣皆娼妓狐媚世俗男子沈溺不悟勸其妻妾使之倣倣轉相傳習嗚呼時體不修而閩人妓裝凡百婦人其宜丞改.

35) 강혜원, 전계서 28, pp.322~323.

중류 또는 하류계층의 富農, 大商 그리고 妓生들은 복식을 통하여 자기의 부를 과시하면서 신분상승의 욕구를 극복하기 위해 紗羅綾緞의 高級 옷감을 사용하여, 화려하고 장식성이 강조된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사치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기생들은 사회신분에 대한 지위는 낮았지만 그들이 상대하는 대상이 주로 상류층의 남성들이었으므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신분 지위와 경제적 지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써 그 지위들 사이에는 기대감에 대한 격차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더욱이 그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남성들을 유혹해야 했는데 이는 당시 향락풍조에 의해 에로티시즘이 강조된 단소화된 저고리와 풍성한 치마를 접어들려 속옷을 보이게 착용하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그들은 복식을 통해 지위 불일치의 갈등과 내적인 본능과 욕구를 그대로 표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신흥부자들과 기생들의 사치스럽고 단소화된 저고리는 전란후의 비교적 쉬운 사회적 이동으로 생겨난 상·하 계층의 매개층인 중인 계층에 의해 일반 부녀자들에게 비교적 쉽게 모방하고자 하는 여성의 복식 심리를 조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상과 같은 상하계층 간의 경제적인 지위 외에도 남녀간의 경제적 지위에 의해서도 복식이 변화한다. 제임스 레이버는 여자들이 남편을 부양자로서보다는 남자로서 선택할 수 있을 때 양성 의 옷은 매우 비슷해지며, 여자들이 집안의 우아한 노예의 지위에 머무르는 경우 그녀들의 복식 형태는 부드러운 곡선이 된다고 하였다.<sup>36)</sup>

이러한 경제적 지위와 복식간의 상관관계를 조선시대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지위를 재산 상속을 통해서 살펴보면, 상고 시대부터 조선초기까지는 男女均分 相續制였으

며, 혼인을 하더라도 자기 개인의 재산을 소유하였으나 조선후기에는 男女差別相續으로서 여성에게 재산 상속 몫이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그리고 고려·조선초까지의 여자 저고리는 남자 저고리와 비슷한 형태로서 실용적이고 활동하기에 편리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 여성들의 열악한 경제적 지위는 그들을 열등의식속에 빠지게 하였으며, 이러한 심리적인 위축은 복식에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복식이 소극적이고 장식적인 측면으로 흘러 여자 저고리는 극단적으로 단소화되면서 부드러운 곡선화의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조선후기의 농업, 상업의 발달로 인해 경제적 부를 축적한 중류 또는 하류계층의 신흥부자가 생겨났으며, 이들은 경제적 지위는 높은데 반해 사회적 지위가 낮음으로 인해 지위 불일치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지위들 사이에는 기대감에 대한 격차가 발생하므로써 그들의 신분상승 욕구는 더욱 강열 해졌으며 그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남성들을 유혹해야 했으므로 그들은 에로티시즘이 강조된 단소화된 저고리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양반 부녀자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경제적 지위가 열악해 졌으며 그로 인해 소극적이고 장식적인 복식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때 부를 향유한 중인계층과 기생들의 장식적이고 단소화된 저고리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신분계층의 완화로 용이하게 착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3) 文化的 側面

문화적인 기호와 가치관은 복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표출된다. 따라서 그 시대의 가치관과 도덕성이 변화함에 따라 복식이 변화하며, 그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도 복식이 변화한다. 즉 도덕적인 관념과 윤리적 해이함이나 방종으로 특징지워 지던 시대에는 복식에 있어서도 극도의 사치와 낭비

36) Marilyn J. Horn, Lois M. Gurel (이화연 외 2인 번역), 의복 : 제2의 피부, 까치, 1992, p.137.

현상이 나타난다.<sup>37)</sup> 그러므로 복식은 인간의 內的인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인간이 복식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두 가지의 서로 모순되는 경향을 가진다. 하나는 인체를 은폐하여 인간의 도덕심을 만족시키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체를 노출시켜서 미를 나타내고, 인간의 내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다.<sup>38)</sup>

정치제도와 생활 전반적으로 유교 윤리 의식이 비교적 강했던 조선초기에는 禮와 道德性을 강조함으로써, 내면적인 것보다는 외면적인 것에 치중하여 억제와 절제를 통한 위엄과 엄숙함, 정숙함으로 표현되는 은폐의 성향이 짙은 복식을 착용하였다. 즉 도덕적인 기준이 엄격하고, 금욕적이었던 이 시대에는 성적 과시, 노출, 성적 욕망, 혐오감이나 수치심, 아름답거나 화려함을 억제하기 위하여 저고리가 비교적 헐렁하고 긴 형태의 검소한 옷차림을 하여 정숙성의 측면이 강조되었다.

이는 미적인 가치를 정신적인 것에 많은 비중을 두어, 모든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정신적 가치인 쉼에 바탕을 두고 이를 행하는 것을 도덕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도덕적인 禮의 형식을 갖춘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았으며 복식을 인격의 상징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유교의 男尊女卑의 봉건적인 사회제도의 확립과 함께 유교 규범에 의한 기존 가치체계와 새롭게 형성된 근대적 사실주의와 개방주의가 혼용되어 유교 윤리가 약화되었으며, 변해가는 도덕관에 따른 인간 본연의 욕구 표출은 性文化를 개방시킴으로써 여성을 하나의 에로틱 대상으로 등장 시켰다. 이에 새로이 지각된 여성들은 도덕적인 정숙성과는 거리가 먼 인체의 아름다움이 과시되는 에로티시즘적인 복식을 착용하였다. 즉 이 시기의 여자 저고리는 극도로 짧아 가슴을 겨우 가리는 정도의 길이로 변화였고,

치마는 접어들려 속옷을 보이게 입음으로써 우리나라 여성 복식에서 가장 에로틱한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이러한 저고리의 노출현상은 서양의 완전 노출과는 다르게 치마 허리를 사용하여 가슴의 노출을 은폐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가슴을 가리기 위한 은폐는 착장방법에 의해서 오히려 가슴을 더욱 강조하여 성적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조선후기 여자 저고리에서는 은폐미와 노출미가 함께 나타남을 볼 수 있다. <圖-6>

이러한 현상은 여성이 도덕률로써 사회화되는 가운데 그들의 윤리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리라 본다. 즉 똑같은 치마 허리 사용에 의해서도 착용방법에 따라서 양반 부녀자들은 은폐미가, 기녀들은 노출미가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선후기는 유교의 內外法에 의한 여성의 성적 억압과 실학의 현세주의와 인본주의, 그리고 개방주의 사상 사이의 갈등과 유교 윤리 약화에 따른 변해가는 도덕 관념으로 인간 본연의 본능과 욕구의 표출은 性文化를 개방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저고리에도 반영되어 장식적이고 에로티시즘적인 형태로 표출되어 주변의 다른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선정적이고 개성적인 아름다운 미의식을 나타내게 되었고, 이전의 인격상징 중의 하나였던 복식이 물질적 객체로 그 의미가 변해감을 볼 수 있다.

#### IV. 結 論

복식은 상호작용을 위한 非言語的 記號로서 사회 구성원 간의 공통된 동일한 상징을 만들어냄으로써 의사전달적인 기능을 가진다.

조선후기는 입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심화된 시기로 법적인 여성의 지위가 크게 하락되었으며, 內外法 강화에 따

37) 李仁子, 服飾社會心理學, 수확사, 1989, p.84.

38) 金京玉, 衣服의 露出에 관한 研究,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3, p.1.

른 남녀차별적 여성관이 고정화되었다. 따라서 이전과는 다른 폐쇄적이고 억압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많은 심리적 갈등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급격한 단소화의 경향을 나타낸 여자 저고리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전반적인 시대상과 여성상을 통해 여성들이 처한 구조적인 상황에서의 심리적 상태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당시 여자 저고리에 반영된 상징적 의미를 다음 세가지로 추정하였다.

첫째, 성역할의 변화로 조선후기 가부장제 가족구조가 확립되자 內外法이 강화되어 엄격한 역할관념이 주어진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이 심화되어 여성은 낮은 성지위를 부여받는 동시에 순종적인 여성상의 역할이 요구되었다. 즉 유교의 남존여비에 의해 낮은 성지위를 가진 여성들의 심리적 갈등은 복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저고리의 형태는 수동적으로 남성들에게 잘 보여지기 원하는 짧고 좁은 저고리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 신분계층의 변화로 조선후기 사회에서의 계층간 신분이동이 가능해 짐으로써 신분제도에 혼란이 오며 이는 복식의 신분계층 구별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중인계층과 기생의 삼회장 저고리의 착용은 그들의 신분상승의 욕구와 갈등의 표출이었으며, 상류계층의 단소화된 저고리의 착용은 당시 유교 사회에서의 낮은 性地位와 높은 身分地位의 불일치에 따른 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신분계층의 완화로 자유롭고 아름다운 기생들의 복식을 모방 가능하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조선후기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중·하류층의 富農, 大商의 부유층이 생겨나며 이들은 복식을 통하여 자기의 富와 위계화된 사회속에서 그들의 사회적 신분의 은폐와 신분상승의 욕구를 동시에 표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생들은 그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성들을 유혹해야 했으므로 그들은 에로티시즘이 강조된 단소화된 저고리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양반 부녀

자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경제적 지위가 열악해 짐에 따라 소극적이고 부드러운 곡선의 경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때 부를 향유한 중인계층과 기생들의 장식적이고 단소화된 저고리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신분계층의 완화로 용이하게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조선후기 유교의 기존 가치체제와 남존여비 사상과 함께 새롭게 형성된 근대적 사실주의와 개방주의가 혼용되어 유교 윤리가 약화되었으며 변해가는 도덕관에 따른 인간 본연의 욕구표출은 性文化를 개방시킴으로써 여성이 하나의 에로틱 대상으로 등장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후기 사회와 각 개인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여성들의 저고리는 여성의 인체를 잘 표현해 주는 장식적이고 에로티시즘적인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는 당시 문화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하나의 인격상징이었던 복식이 물질적 객체로서의 의미가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조선후기 저고리의 형태 변화는 단소화, 곡선화의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 환경속에서의 여성들의 내적 욕망과 사회적 억압이라는 갈등과 모순이 복식의 비언어적 기능을 통하여 저고리의 형태변화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복식의 상징적 의미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 여자 전체 복식 중에서 저고리 하나만으로 분석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이는 앞으로 보충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參考文獻

### 〈古 書〉

1. 閩中要覽(李 滉), 筆寫本, 國立中央圖書館藏.
2. 內訓(昭惠王后), 影印本, 人文科學資料叢書4, 延大出版部, 1969.
3. 湛軒書(洪大容), 대양서적, 1975.

4. 星湖僿說(李 漢),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7.
5. 尤庵先生戒女書(宋時烈), 정음사, 1986.
6. 靑莊館全書(李德懋),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7.
7. 擇里志(李重煥), 삼중당, 1976.

#### 〈現代書〉

1. 강혜원, 의상사회 심리학, 교문사, 1991.
2. 고영복,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숙명여대 아세아여성사연구 제10집, 1971.
3. 김경옥, 의복의 노출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3.
4. 김두현, 한국가족제도 연구, 서울대출판부, 1980.
5. 김영숙, 18세기 여자 저고리 옷길이 변화요인에 관한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9(3), 1986.
6. 김용숙, 이조 여인상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제 10집, 1971.
7. 김용숙, 한국 여속사, 민음사, 1991.
8. 김지용, 내훈에 비취진 이조 여인들의 생활상, 아세아여성연구 제7집, 1968.
9. 박규미, 유물실측을 통한 여자 저고리의 치수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1984.
10. 박용옥외 6인, 한국 여성 연구 1, 청하, 1991.
11. 배경숙, 한국여성 사범사, 인하대학교출판부, 1988.
12. 사회, 민속연구실, 유교적 전통사회의 구조와 특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13. 손직수, 조선시대 여성교육 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2.
14. 손희순, 의복의 정숙성에 관한 고찰, 배재대학 논문집 제5집, 1984.
15. 이능화, 조선여속고, 동문선 문예선집 28, 1990.
16. 이여성, 조선복식고, 민속원, 1992.
17. 임재영, 조선후기 복식발달의 요인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88.
18. 전혜경, 복식의 에로티시즘 양식, 서울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4.

19. 정요섭, 이조시대에 있어서의 여성의 사회적 위치, 아세아여성연구, 1976.

## ABSTRACT

### The Meaning of the Shortening Tendency of Women's Chogori in the Latter of Period Chosu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hortening tendency of women's hanbok chogori (upper part of the Korean traditional dress) in the latter period of Chosun in three respects-socially, economically, and aesthetically.

First, from the social point of view, sexual role and social status were examined. The strict sexual roles between males and females made the latter inferior to the former. The relatively lower sexual role had the woman look receptive and passive and wear a short and narrow kind of chogori. Also, the confusion of the social status system weakened the function of the costumes to differentiate social classes and, consequently, almost all classes wore short chogori.

Second, the economic progress in the wake of the commerce-centered positivism at that time helped raise the economic status of the middle and low classes. As a result, with their social and economic status elevated, they tried to wear somewhat luxurious chogori.

Third, aesthetically speaking, erotically-looking and much-shortened chogori derived from the weakened male-centered Confucian traditional ethics in conflict with the humanitarian positivism.